

계시록 20:1-3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20:1)

무저갱은 헬라어로 ‘아비소스’(abyssos)이다. 9장에서는 이 무저갱의 천사인 사단이 무저갱을 열고 사단의 무리를 풀어놓았다. 그들은 큰 파멸과 고통, 고뇌, 죽음 등을 가지고 전세계에 퍼졌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20:2-3)

그 누구도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으며 우리가 왕국 시대에 있다고 속일 수 없다. 본문에는 왕국 시대에 사단이 큰 쇠사슬에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때문에 사단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격노하며 그 세력을 행사할 수 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아래 있지는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러 오실 때에는 천사들이 큰 쇠사슬을 가지고 사단을 결박하여 무저갱으로 던질 것이다.

그 후 사단은 천 년 동안 무저갱 속에서 결박되어 가두어지고 인봉되어 쇠사슬에 묶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잠깐 동안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쇠사슬로 결박하신 후에 다시 잠깐 놓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의문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사단을 자유롭게 하셨으며, 결국 사단을 가두실 것이면 왜 오래 전에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구해 주시지 않으셨는가?’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실 수 있었다. 그렇다면 악이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달리 취할 방도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를 섬긴다는 것을 알고 싶어하신다.

이것은 만일 당신이 매우 아름답게 생겼을 경우에 가질 수 있는 문제와 비슷하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당신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인지, 아니면 당신 자체 때문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아주 부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인지 당신의 부를 사랑하는지 알 수 없다. 그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를 알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셨다. 그리고 사단에게 그 선택권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미끼 삼을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참된 것인지 드러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 찬양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나 때때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가 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려 할 때는 언제나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경배와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는 지금 혼란 가운데 있다. 타국에 가 있는 동안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 한 주인의 이야기를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주인은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다. 주인이 돌아오자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열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또 두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저에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지금은 네 달란트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인은 마찬가지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를 받아 그것을 땅에 묻어 두었던 종이 와서 “주인님, 저는 이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습니다. 당신은 사납고도 인색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인은 “그래 네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하니 네가 아는 그대로 심판받아야 할 것이다”(마25:14-30)라고 대답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하늘 나라에 가면 책임을 맡게 되는데, 그것은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실했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 때 우리에게 세상의 한 부분이 할당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부지런하며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더욱 큰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이러한 사실은 특히, 누가복음 19:12-17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게으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때에도 할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주인은 게으른 종에게 주었던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되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은 그 때에 가서는 가질 필요도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지구는 다시 풍요롭게 결실할 것이다. 또한 사단은 결박되어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탐욕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전쟁도 없을 것이고 고통도, 질병도, 불행도, 미움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화와 사랑 가운데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가난함에서 부요함으로 바뀔 것이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와서 그분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때 새롭게 영광스러운 육체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많은 점에서 빨리 노화하는 이전의 썩어질 육체와는 다를 것이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잠시 존재하는 실체만을 다룬다. 모든 물질 세계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대과학자인 존 허셸(John Herschel) 경은 우주가 태양이 끝까지 다 감겨진 시계와 같고, 그 태양은 천천히 풀리고 있다고 했다. 태양은 매초마다 120만 톤의 질량을 잃어가고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아마도 태양은 100억 년 이상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열역학 법칙들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모든 것은 점진적으로 퇴화하고 있으며 엉망이 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새 육체를 새로운 방법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 육체는 천상의 요소들로 만들어질 것이다. 당신은 벽을 통과해서 그대로 곧장 걸어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피트(30센티미터) 두께의 유리에다 회중 전등을 비추면 그 빛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반대편으로 나올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던 방의 벽을 그냥 통과하셨다(요20:26). 문들이 모두 잠겨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 중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다.

우리가 입게 될 새로운 육체는 아마도 행성 지구에서의 분자 구조와는 다른 분자 구조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한,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은 양자, 전자, 중성자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합하셔서 이렇게 무한한 다양성을 창조해 내셨다. 그러니 이것과 다른 구성 요소가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 세 가지 구성 요소에

제한되신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도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만드셨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몸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전15:49).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육체를 만드실 때 사용하시는 구성 요소는 천국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시는 구성 요소와 같을 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육체는 피곤함도 느끼지 않을 것이며, 잠을 잘 필요도 없을 것이다. 천사처럼 빠르고 쉽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곳을, 그리고 그곳에 있게 될 것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곳에서는 역할도 새로워진다. 한번은 사두개인들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지어내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 하였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결혼한 후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자가 죽었을 때는,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 들어 자식을 낳아 후사를 세워야 했다. 이것을 이용하여 사두개인들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할 때마다 아이를 갖기 전에 남편이 죽어서 결국 일곱 번이나 결혼을 하게 된다는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일곱 형제가 모두 그 여자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전에 죽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다. “부활 때에 그 여자는 일곱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머리 속으로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를 놓고 싸우는 것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마22:23-30)고 대답하셨다.

사람들은 결혼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결혼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가족 단위로서 결혼제도를 마련하셨다. 이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바로 가정이다.

하늘 나라에서는 우리도 천사와 같다.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때에 우리는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게 되겠는가? 그것은 분명히 결혼과 같은 형태는 아닐 것이다. 더 아름답고, 심오하고, 영광스러운 관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성(性)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천사들은 남성으로 보여지지만 그것을 증명할 근거는 전혀 없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부활 때에 우리가 천사와 같이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매인 자도 없고, 자유인도 없다고 말한다(골3:11). 또한 남성, 여성도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고 했다.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 해방 운동도 필요치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하늘 나라에서도 분명히 그럴 것이다.

계시록 20: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20:4)

왕국 시대에 누가 세상에 있게 될 것인가? 첫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둘째, 대환난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베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 년 동안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돌아올 것이다. 나는 구약의 성도들도 돌아오리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대환난을 견뎌내는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체제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그 때에 완전히 멸해질 것이다. 그들은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천 년 통치 때에도 세상에 살 수 없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가? 이것은 단지 추측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유대인 가운데 3분의 1이 살아 남을 것이라고 암시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숙13:8-9). 살아 남는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많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는 충고의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싫은 사람,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이 좋을 듯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 부패한 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칠 년 동안 지낼 수 있는 어떤 생존의 수단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이 사회는 완전히 적그리스도에게 양도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 활동도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떠맡을 것이다. 그의 표 없이는 아무도 무엇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표를 받으면 영원히 생명을 잃고 멸망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멕시코의 정글로 떠나, 국가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멕시코에는 과테말라 국경선 근처에 큰 정글 지대가 있다. 나는 그 곳에서 살 계획이 없다. 단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있을 뿐이다.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것이다. 당신의 무지 때문에 멸망당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죽는 것보다는 음식을 사거나 팔지 않고, 또 현대 사회와 아무 관계 없이 7년 대환난을 살아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인디언들은 멕시코의 정글에서도 살아 남는다. 만약에 인디언들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 수 있다면,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세계의 체제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사회가 있기는 하다.

파나마의 Darien 지방에 있는 코코스(Chocos) 인디언이 그런 경우인데, 그들은 매우 근면하며 먹을 것을 자급자족한다. 그들은 바나나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 가서 그것을 팔아 은전으로 바꿔온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는 정글로 다시 돌아와 쿼터(quarter-25센트 동전)와 다임(dime-10센트 동전)에 구멍을 뚫어 목걸이를 만든다. 그들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들은 완전히 독립되어 자급자족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돈이란 햇빛에 반짝이는 예쁜 장식품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자기 생존을 사회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적그리스도의 경제적 압력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대환난을 이겨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험한 길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신다.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거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은 그 때 지옥의 불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남아 있는 다른 사람들은 왕국 시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20:5-6)

예수님은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마25:34-41)고 하실 것이다.

지옥(Gehenna)은 인간에게 예비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 예비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르고 배반하며 마귀에게 충성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자신들의 바람을 이룰 것이다. 그들도 역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 세대에 살며 그리스도의 심판을 견뎌낸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땅이 회복되는 왕국 시대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세상의 외양과 구조는 태초의 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세상에는 비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에 밤마다 수분이 농축되어 대지와 초목을 부드럽게 적실 것이다. 만물이 열매 맺고 풍요롭게 될 것이다. 전세계가 마치 하와이처럼 될 것이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창3:17-19). 그러나 하나님의 처음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땅으로 풍성히 열매 맺어 인간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하셨다. 인간은 그저 나무에서 먹을 것을 따먹기만 하면 되었다.

이제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생명도 길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면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죄를 짓는다면 거기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 때에는 교회가 정의를 시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지배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의의 시행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2:27-27). 철막대기같이 엄한 정의로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대환난을 이겨내서 왕국 시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더 이상 탐욕과 죄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철장의 지배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천 년은 환상적인 시대가 될 것이다!

계시록 20:7-10

이 천 년이 끝날 즈음에, 사단이 무저갱으로부터 풀려날 것이다. 다시 한 번 사단은 세상을 미혹할 것이다. 천 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불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20:7-8)

놀라운 사실은 그 때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반역한다는 것이다.

최후의 반역이 일어난다. 땅이 회복된 왕국 시대의 이상적인 조건하에 살면 사람들은 매우 크고, 건강하게 될 것이다. 질병이나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천 살까지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 년 왕국이 끝날

조음이 되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을 것이다. 그 천 년 동안은 그리스도만 섬겨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선택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천 년이 다 되어 사단이 풀려나면 사람들은 선과 악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할 것이다. 터무니없는 생각 같이 보이지만, 사단이 그리스도를 멸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미혹하여 군대를 모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 환희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들려올라가서 영광된 육체로 주님과 함께 되돌아오는 사람들은 이 때 사단과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이 사단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20:6). 그 때에는 사단의 반역에 의해서 총동되지도 않을 것이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다. 사단의 이 마지막 반역은 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했던 사람들에게 시험 기간이 될 것이다.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에 대항하는 반역적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아담은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지낸 지 겨우 며칠 되지 않아 죄를 지었는데, 만일 그에게 좀더 기회가 있었다라면, 그래도 죄를 지었겠는가? 그것은 모두 환경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다. 문제는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이다.

여기에 왕국 시대의 온갖 혜택과 축복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정의와 평화, 그리고 사랑이라는 완전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사단이 풀려나면, 사단의 군대에 합류하여 거룩한 땅을 침범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시온 산에서 군림하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것이다. 그러나 침범한 이 군대는 완벽하고 철저히 정복당할 것이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킬 것이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20:9-10)

‘세세토록’이라는 구절은 영원성을 표현할 만큼 강한 의미를 지닌 헬라어이다. 지옥은 영원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특수한 의미에서 본다면 그것은 사실이다. 지옥(Hades, 음부)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반역하고 거스른 사람들을 영원토록 벌하시는 장소가 있다. 그 곳은 불못, 곧 게헨나(Gehenna)이다.

계시록 20:11-13

이제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때이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다니엘도 말했다. 자는 자 중에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단12:2). 사실상 이 두 부활은 적어도 천 년은 떨어져 있다.

첫번째 부활은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다스리기 위해서 깨어나는 정의로운 죽은 자들의 부활일 것이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찰 때까지 살지 못할 것이다(계20:5).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우리는 둘째 부활을 살펴볼 것이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 대소하고 (이 시점까지 살다가 죽은 모든 불의한 자들)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20:11-13)

13절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죽음과 지옥이 내어준 자들에게서 분리되어 다른 범주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아담 이전에 어떤 지적인 존재가 지구상에 살았고 바다 가운데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론을 뒷받침해준다.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음부'(헬라어로는 Hades라고 불리는)라고 하는 일종의 대기소에 있게 된다. 이곳은 지구의 중심부에 있으며, 거기에는 불의한 죽은 자들이 있다.

수장되었든지, 화장되어 그 재가 비행기에서 뿌려졌든지 관계없이, 그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으로 간다. '수장'되었기 때문에 바다가 그 죽은 자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묻혔든지 죄인이라면 그의 영혼은 지옥에 간다. 그런데 계시록 20:13에는 바다가 내어준 죽은 자들과는 별개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했다.

우리는 아담 이전에 있었던 피조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그에 관한 아무 기록도 없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만일 그들이 존재했었다면 파멸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창세기1:1은 최초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이다. 1:2은 이렇게 읊길 수 있다. "그러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물에 잠기게 하시는 대격변으로 아담 이전의 인류를 완전히 파멸하셨을지도 모른다. 잃어버린 아틀란티스 대륙과 태평양에 있었다고 하는 "뮤"(Mu) 대륙에 대한 소문과 전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약 6,000년 전에 아담을 세상에 살게 하셨다. 그러나 지구의 나이는 그보다 최소한 수천 년은 더 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아무도 살지 않게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당해 보이지 않다. 또한 하나님께서 형체도 없이 비어 있는 어떤 것을 창조하셨을 것 같지도 않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창조물에 각각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사야서에도 하나님은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셨다고 했다.(사45:18)

마찬가지로, 지구가 하나님이 이성적인 피조물을 두신 유일한 장소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성경은 다른 행성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넓고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셔서 지구라는 한 작은 곳을 택하여 사람을 살게 하셨겠는가? 이 우주 안에 우리들만 살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는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려고 별들을 우주에 뿌려 놓으셨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우주의 다른 곳에도 사람을 살게 하셨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온 우주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뿐이다. 인간은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시며, 당신을 매우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구원을 예비하신 것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보잘것없든지 위대하든지, 모든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했다. 책들이 펴 있고 죽은 자들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행한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 그러한 기록이 있다는 것이 다소 놀라운 일이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행한 모든 행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록 역시 완전할 것이다. 죽은 자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다.(20:12)

한번은 유대인들이 예수께 다음과 같이 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에 대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요6:28-29)고 대답하셨다. 이렇게 물었던 자들 역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가(성령)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요16:8-9)

누구든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라고 하셨다.(마12:31)

성령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라고 일러줄 것이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성령의 그 증거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성령을 훼방하고 무례히 행하는 것이 된다. 또한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유일한 경로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노하심의 맹렬한 분노를 오직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히10:27, 29)

우리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죄의 결과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아도 된다.

만일 당신이 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알고 있으면서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등을 돌렸다.

전체적인 장면을 생각해 보는 데는 그리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다. 군중 속에 당신이 서 있다. 기록을 맡은 천사가 책을 읽어 나가다가 마침내 당신의 이름을 부른다. 당신이 그 앞에 나아갈 때, 당신의 모든 행위가 날날이 공개된다. 당신은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떨면서 나아간다.

당신이 말한다.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래 천천히 해라. 너는 영원이란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럼, 주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대단한 위선자였죠. 그래서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두 이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다’고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

“나는 어떤 사람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다.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다.”

당신이 또 응수한다.

“그러면 더 설명 드리죠. 세상에는 교회가 너무나 많고, 모든 교회가 다 자기들이 올바른 교회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죠 어느 교회에 가서 믿어야 할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하신다.

“나는 네게 어떤 교회에 가서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네게 내 아들을 믿고, 그를 네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말했을 뿐이다.”

당신은 모든 변명을 하고, 마침내 더 이상 변명할 것이 없게 된다. 책들은 펼쳐져 있고, 당신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히10:31)

최후의 판결이 있다.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어렵게 여겨진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참으로 곤란하기 때문일 것이다.

첫째, 당신은 그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아 왔다. 당신이 원하는 그 곳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해야 했다. 그분은 당신을 가로막고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에게 내 모든 것을 주었다. 나는 너 대신 죽기까지 했다. 너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피를 흘렸다. 너를 죄에서 구원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나 자신을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당신은 그분을 짓밟아 온 것이다.

둘째, 당신은 깨끗케 하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주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성경은 “피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히9:22)고 했다. 피흘림은 생명을 준다라는 것을 뜻한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 여기에서 피흘림은 생명을 바침으로써 죄의 형벌이 보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레17:11).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죄를 지으면, 정녕 죽으리라”(창2:17). 처음부터 죄의 값은 사망이었으며 그것은 결코 감해진 적이 없다. 오늘날에도 역시 죄의 값은 사망이다.(롬6:23)

그리스도는 당신을 구원하려고 피를 흘리셨다. 그런데 당신이 그분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된다.

셋째, 당신은 성령의 은혜를 멸시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너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기만 하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씀하신다. “너는 죄를 지었다. 보라, 너는 죄인이다. 네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너의 삶을 그분께 맡기어라.” 그러나 당신은 성령의 은혜를 무시한다.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내 방식대로 할거예요 나 스스로의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 나를 괴롭히지마세요!”

이 세 가지를 한다면, 단정하건대 언젠가 당신은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때 당신이 나를 쳐다본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말했잖아요 당신이 믿지 않았으니 유감이군요”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저주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겔33:11).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사랑으로 당신을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이 예비하신 것을 거절하면 그 결과는 고통뿐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죄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마지막 심판날이 올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내를 약점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다. 그들은 하나님이 죄를 정말로 벌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실 의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본문의 장면은 누군가의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이러한 일들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계시록 20:14-15

사망과 음부도 불못 (게헨나) 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20:14-15)

하나님 앞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신의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책이 한 권 있다. 그것은 **생명책**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 속에 오셔서 당신의 죄를 씻어 주시길 구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라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 대해서 읽을 때 아무런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나의 죄가 이미 심판받았기때문에 동요하지 않는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내가 서야 할 유일한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고후5:10), 이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올림픽 경기에서의 심판대와 같다. 나는 한 경기에 출전하여 승리했다. 그래서 심판대로 가면, 심판이 나의 머리 위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준다. 바울은 말했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전9:24)

누구든지 둘 중 하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있고,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있다. 어떤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다. 당신의 선택으로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의 심판대에 서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이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 서는 사람은 “패하였다”고 하는 한 마디만을 듣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철길을 따라 집으로 걸어가던 한 농부에 관한 글을 읽었다. 저녁이 되어 그는 랜턴을 켰다. 걸어가다 보니 철로가 갈라지고 부서진 곳이 나왔다. 그는 시계를 보고,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시카고행 기차가 몇 분 후에 이곳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기차가 철로의 망가진 부분에 이른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될 것이었다.

그는 기차가 오고 있는 방향으로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잠시 후 멀리서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렸다. 그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달렸다. 마침내 그는 다가오는 기차의 불빛을 보았고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서 철로 중앙으로 달려 내려갔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펄쩍 뛰면서 기차의 운전석 쪽으로 랜턴을 들어 운전 기사의 얼굴에 비추었다. 운전 기사는 즉시 비상 브레이크를 잡아당겼고, 바뀌는 불꽃을 내뿜었다. 기차는 부수진 철로 바로 앞에서 멈추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음을 향한 철로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신의 얼굴에 비추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옥을 향한 그 미친 듯한 돌진을 멈추기를 원하신다. 당신은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랜턴을 비추는 그 사람이 미치광이라고 욕하면서 파멸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당신은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분노에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